하나님을 창조주로 직접 체험하기

(시편 95:1~11)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2.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3.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4.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5.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6.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7.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8.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맛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직접 체험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직접 체험하기'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만나고 체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만나기 위해 십자가 생활화를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봄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생활화'라는 말이 뜻하는 대로 언제 어디서든지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의 상황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만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뉴스를 통해 세상의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나도 모르게 마음은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이루어 놓으신 하늘 공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늘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은 십자가 안쪽에 머물게 되는데 이것이 십자가 생활화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경계입니다. 육지가 끝나면 바다가 시작되고 바다가 끝나면 육지가 시작되듯이, 십자가에서 세상이 끝나고 하늘이 시작되고 하늘이 끝나고 세상이 시작됩니다. 마음은 십자가 안쪽에 머물면서 몸은 십자가 바깥에 남겨진 상태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체험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하며 가족을 의식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어려서는 아버지가 그룹의 회장님일지라도 그것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런데 성장하여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아버지가 회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사람들이 아버지께 취하는 태도를 보게 됩니다. 집안에서 격 없이 지낼 때와는 다르게 회장님으로서의 공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가 회장님이라는 것을 체험한 아이는 세상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는데 세상이 가볍고 쉽게 보입니다. 그러한 태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체험으로 인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생기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창조주 되심을 교리로 배우고 신앙고백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는 어린 아이가 집에서 아빠가 회장님이라는 소리를 듣기만 하는 상태입니다. 직접 창조주 되심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는 전능하심과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소유주이시며 섭리하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면 세상에 대한 느낌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직접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소유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직접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완악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8절을 보면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맛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알아보고,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을 매일매일 체험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 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고 동시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심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힘찬 찬양을 부를 것을 호소하면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하신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직접 체험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므리바 사건을 통해 회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본문이 말하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서 즐거이 감격하면서 찬송할 수 있을까요?
진심어린 찬양은 전능하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창조주로 느껴져야 가능합니다. 힌트는 이 시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때의 감사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온 사람들은 성소와 지성소를 바라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는 내 마음을 비추어보는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던 것처럼 내 마음의 지성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성소는 곧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의 이름을 붙잡는 곳입니다. 성소의 분향단은 기도를 뜻하는데 즉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붙잡은 존재의 이름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등대가 뜻하는바 판단하면서 추구하고, 배부름을 뜻하는 떡상이 있었습니다. 판단하며 추구하고 배부르기 위해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붙잡은 사람은 돈을 갖는 것을 좋은 것으로 판단하며 추구하고 돈으로 배 부르려고 추구합니다. 그러나 돈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으로 배 부르려 하지 않았음을 성소와 지성소를 보며 깨닫고 번제단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번제단을 통해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더는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기쁨을 얻겠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으로만 기쁨을 삼겠다고 확정했을 때에 세상에는 몸이 남게 됩니다. 마음은 세상의 기쁨거리들에 대해서 죽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갔지만 몸은 남아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남겨진 세상을 볼 때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주관하시고,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공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활동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면 사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료들까지 관계할 사람들이 있고 주어진 업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세상 속에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장 우선적인 현실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장이고 과장이라는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사실만이 첫 번째 직분이고 현실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직장에 대해 죽는 것은 직장에서는 기쁨과 만족거리를 찾아서 캐낼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장님에게 야단을 들을지라도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사장님에 대해서 죽습니다. 어차피 사장님으로 주어질 기쁨과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하다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에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쁨은 배우자에게서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직 부활 승

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임을 떠올리고 배우자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이처럼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은 내게 아무런 기쁨과 만족도 줄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로만 기뻐하는 것을 운명과 팔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팔자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로부터 기쁨을 얻을 수 없으며, 직장에서 버는 돈으로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내 팔자와 운명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확정했을 때에,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시면 갑자기 달라진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내가 놓인 현실에 대해 죽고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십자가 안쪽에서 바라보는 십자가 바깥에 몸이 남아있는 삶의 현장은 경치가 되고 전망이 됩니다.
그런 경치와 전망 속에서 눈에 들어오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백합화 한 송이까지 관여하시며,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며, 몸이 영위해야 할 이 세상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나를 야단치고 있는 사장님까지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온 세상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달을 때에 감격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경치에 감탄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도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럴 때에 폭포의 물방울 하나까지도 관장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백합화를 보면 예쁨에 감탄하며 기쁨을 얻기 위해 꺾어서 집에 가져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백합화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봅니다. 백합화는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없음을 알고 마음이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에 그 백합화를 입히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 관광을 다니며 유적지를 보고 감탄하지만 우리는 그런 유적지를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손길을 봅니다.
이처럼 나의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장소는 아버지가 공적으로 일하시는 현장이자 직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이 세상을 인간의 삶의 현장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직업은 이 삶의 현장으로부터 마음을 아버지께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떠나고 몸만 남아있는 삶의 현장은 아버지께서 공적으로 활동하시는 아버지의 직장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직장입니다. 내가 먹고 살고 활동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도 이 자리는 아버지의 직장이고 아버지의 활동장소입니다. 이 아버지를 체험할 때에 오늘 시인처럼 찬양하면서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 쉬지 말고 기도하라 /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던 말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내 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시고 알고 계시며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목자 되시어 우리를 기르시고 이끄심을 노래했습니다. 십자가 안쪽에서 십자가 바깥에 몸이 남아있는 삶의 현장에 대해서 아버지가 활동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체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완악함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이 완악함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므리바 물 사건에서만 드러났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15장의 마라에서도 불평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평이 나온 상황은 홍해도하 사건이 일어난 직후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그 가운데로 백성들이 건넜고,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는 물이 덮어서 진멸된 기적을 체험한지 삼 일이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물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었기에 물을 아예 못 먹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갈증에 시달린 것은 짧은 시간에 불과했고 새로운 물을 구할 시간이 아직 없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삼 일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불평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완악함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로부터 마라로 인도하시고 마라이후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왜 보지 못했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은, 홍해의 기적 현장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기적 자체를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그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당신 자신을 소개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은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땅의 기적만을 보며 좋아했습니다. 이는 곧 마음이 여전히 세상 안에 남아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궁극적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도 궁극적으로는 몸이 건강해졌음을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이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일어났음을 보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라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 기적만 좋아할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세상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선민들의 마음은 끝내 세상에 머물렀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거리를 정하고 마음의 지성소에서 그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붙잡은 이름의 존재를 갖기 위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완악함의 정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 선민들이 므리바에서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으며 바로 앞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온갖 기적을 체험하고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기적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을 이 세상에 두고 기적의 하나님을 동원해서, 기쁨과 만족거리를 얻겠다고 기도할 때에 완악한 기도가 됩니다.
돈을 벌어야 행복할 것 같아서 돈 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되자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자 곧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마음이 생깁니다. 암에 걸려서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낫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 마음이 죽어야 세상에 대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놓인 현실에서 마음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시장이든 학교든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이 어디든지 간에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직장에 있는 동안에도 진정한 기쁨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직장에서 기쁨을 얻는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얻은 기쁨을 표현하는 자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마주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통해 기쁨을 얻는 자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배우자에 대해 죽음으로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서로에게 표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배우자의 고집조차도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싫었던 모습에도 웃게 되고 이윽고 마음이 합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사에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능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체험할 때에 삶은 평강이 지배하게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만 가능하다고 확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팔자로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기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팔자라고 여기는 확정된 마음이 생길 때에, 주관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공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을 확인하시고 체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

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유일한 기쁨 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공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현장을 체험하며 찬양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옵나이다.

아멘!